

고대부터 근대까지 동양고전 필독서 50권을 단 한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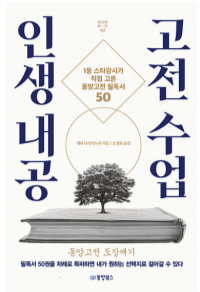
인생 내공 고전 수업

데리사 다카노리 지음, 오정화 옮김

동양고전의 일순위로 꼽히는 것은 어떤 책일까? 바로 '논어'다. 동양의 정치와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둘러싼 공자를 빼놓을 수 없다. 동양고전인 '사서오경'은 공자와 그의 제자, 학파 등이 관계돼 있다.

동양고전 입문 시 가장 먼저 다루는 책이 '논어'다. 한 장 한 장이 간결할 뿐 아니라 외우기도 쉬운 편이다. 많이 알려진 내용 가운데 '학이편'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해본다 다음과 같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는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앞서의 구절은 다음의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내용과 맞물려 있다.



동양의 고전 50권을 모은 '인생내공 고전수업'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모든 시대에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모았다.

동양 고전 전문가이자 '한 번 읽고 이해하는 세계사 B 강' 등을 쓴 데리사 다카노리가 저자다. '1등 스타강사'가 직접 고른 동양고전 필독서 50'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전 내용을 정리했다.

책에 나오는 고전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순자', '장자', '채근담', '주역', '시경', '손자병법', '목자', '정관정요' 등 한번쯤 들어봤을 책부터 생소한 고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저자는 고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으로 '대학'을 꼽는다.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다. 공자의 제자 중 유일하게 이름에 '자'를 붙인 증자가 책을 편찬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일까. "배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돌봐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연유에 주위가 감화되고 점차 범위가 넓어져 나라에 태평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책이 '중용'이

다. 이는 '성(誠)의 철학과 연관돼 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한 이유는 "하늘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중(中)이며 드러나 감정이 절도 있는 조화를 이룬 것을 '화(和)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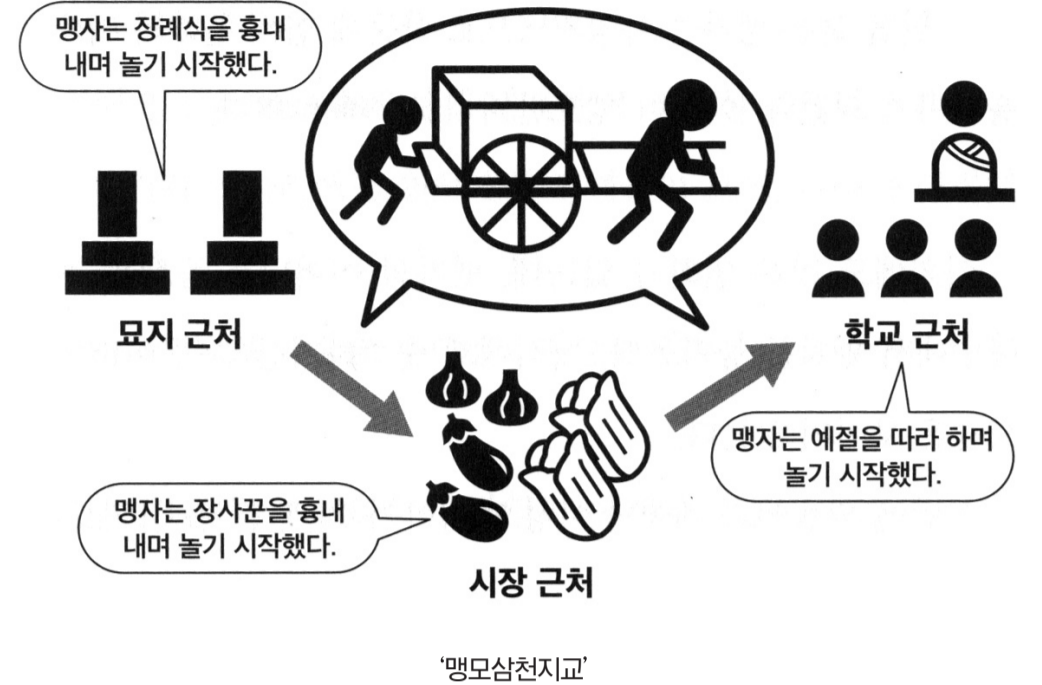
그런데 본성은 선한데 왜 나쁜 행위를 하게 될까? 강한 '정', 즉 희로애락에 치우칠 때 본래의 본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채근담'은 처세에 대한 지혜를 담은 책이다. 책이 만들어진 것은 명나라 말기로 부정부패가 심하고 민중은 도탄에 빠진 시기였다. 짧은 360개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읽어도 무방하다.

저자는 '채근담'에 대해 "역경을 견뎌내고, 겸허하게 행동하며, 명리를 함께 나누고, 가족과 친구에게 관용을 베풀"것을 이야기하는 고전이라고 말한다.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군사 사상서 '손자병법'도 오늘날의 시대 끊임없이 불 만만 고전이다. 핵심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겨야 하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승리의 기본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역사서라는 느낌보다 문학으로 평가받는 고전이 있다. 사마천의 '사기'는 내용 자체가 흥미로워 많



은 문인들에게 영감을 준 책이다. 기전체로 편찬됐으며 사마천은 인물에 초점을 맞춰 역동적으로 기술했다.

알려진 대로 사마천은 불합리한 세태를 아프게 겪었던 인물이다. 그는 불우한 이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역사서를 편찬했다. 책에는 백이·숙제 뿐

아니라 사마천 본인까지 포함해 불우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한편 저자는 "고전을 읽으면 생각하는 힘이 깊고 넓어집니다. 그것이 고전의 힘입니다"라고 말한다. <동양북스·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만해 한용운, 도율이 부른다(2권)

도율 김용욱 지음

"남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남은 갔습니다"로 시작되는 '님의 침묵'은 한용운 시인의 대표작이다. 만해 한용운은 승려이면서 3·1만세운동 33인의 대표다.

올해는 만해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우리 문화사, 특히 현대시문학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로부터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1925년에 집필이 되고 이듬해 1926년에 출간된다.



'님의 침묵' 탄생 100주년을 맞아 도율 김용욱이 한용운 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책을 발간했다. '만해 한용운, 도율이 부른다'는 민족의 지성이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시인 만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책이다.

시인 조지훈은 "만해 한용운은 근대 한국이 낳은 고사(高士)였다. 선생은 애국지사요. 불학의 석덕(碩德)이며, 문단의 거벽(巨壁)이었다"고 평했다.

그만큼 만해는 스펙트럼이 넓고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문학인으로서 손색이 없다. 조지훈을 비롯해 그의 제자들 그리고 '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이 만해의 작품을 모아 1973년 '한용운전집' (6권)으로 낸 것이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1973년의 일이다.

도율에 따르면 이번 책은 자신이 쓴 90여 권 가운데 가장 쉬운 저서다. 전체를 아우를 뿐 아니라 각각을 분석해 기존 만해를 다룬 답론과는 다른 차원의 평론으로 풀어냈다.

저자는 한용운의 시를 오늘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바꾸어놓았다. 도율은 한용운과 해후하면서 자신이 왜 조선 땅에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됐다고 한다.

<통나무·각 권 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

정철 지음

'좁디좁은 골목길도 높은 하늘을 품고 있다', '여행은 그곳에 가는 일이 아니라 이곳을 벗어나는 일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불로 커피를 끓여 마셔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대답은 지워지지 않는 1이다', '흔들여야 바람이고 흔들려야 코스모스다'...

상표이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신문, 잡지, 포스터 등에 사용하는 문구를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말한다. 카피라이터는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수히 많은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다.



40여 년 카피라이터로 문장에 전착해온 정철이 펴낸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은 그가 고르고 쓰고 지우며 꼭꼭 눌러 담아 모은 문장들이다. 저자는 책에 쓰인 문장들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우리 삶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으며, 아직도 두근두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한다.

책을 읽다보면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온다. 유쾌 통쾌한 역발상과 언어유희, 그러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철만의 빛나는 문장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카피라이터답게 평범한 단어가 문장이 되어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마법을 보여준다.

저자는 묻는다. "당신에게는 한 문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답한다. "없다면 오늘부터 쓰면 된다"라고. 지우개로 지우거나 지워가며 마음에 오래 남는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겨보라고 권한다.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문장을 하나씩 늘려가며 글을 쓴다. 아직 완성은 아니다. 연필을 내려놓는다. 지우개로 쓴다. 지우개로 글을 마저 쓴다. 세 문장. 두 문장. 한 문장. 내가 쓴 문장을 내 손으로 지운다. 지운다. 더는 지울 것이 없다. 지우개통 곁에 살아남은 문장 하나가 보인다. 이것이 책을 쓰며 내가 한 일의 전부다."

<김영사·1만8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작은 아씨들 (2권)

루이자 메이 울컷 지음, 보탬 옮김

19세기 미국,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메그', '조', '에이미', '베스' 네 자매는 기독교적 풍위를 지키도록 교육받았다. 그러나 인간에게 모두 내밀한 욕망이 있고, 이들 또한 사회 규범이나 틀을 벗어나 저마다 의지를 갖고 있다. '여자다운 것'이나 '이성에게 사랑 받는 일'에 관심이 없던 저자는 자전적 성장소설을 통해 자신의 '본신'을 창조해 낸다.



루이자 메이 울컷이 성장소설 '작은 아씨들(전 2권)'을 펴냈다. 네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난 울컷은 한 출판사로부터 어릴 적 이야기를 써달라는 제안을 받고 책을 펴냈다고 한다. 소설이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난 뒤로부터 울컷이 정치 활동, 사회 활동 등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작가 삶에 있어 분수령과 같은 책이다.

세계 50개 언어로 출간된 이 고전은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 소설에 손꼽힌 바 있다. 마거릿 애트우드, 조앤 K. 롤링, 힐러리 클린턴 등 거물급 여성 창작자들이 이 소설을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소설 속 울컷의 '본신'들이 구름과 구름을 깨리는 저항자로 역할하기 때문이다. 1권은 네 자매의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그렸으며 2권에서 자매들이 각자 배우자를 만나 성장하는 서사를 담았다. 출간 초기에는 단순한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로 평가절하되기도 했으나 페미니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 진가를 재평가받았다.

"오, 내 딸들아!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언제나 오늘날만큼 행복하다면 더 바랄 게 없겠구나!" 여성들의 분투담 속에서 꽃피는 서로 간의 연대는 오늘날에도 감동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동화적인 화풍의 삽화(그림 카나)는 어린이 독자들이 소설 속 세계에 몰입하는 것을 돕는다.

<열림원어린이·각 권 2만7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11월호

2024년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익어가는 우리 술의 매력

- 청년 양조인들의 도전 참신해진 '남도 전통주'
- 남도 전통주는 어떤 술이 있나
- 자존심으로 최고를 빛는 막걸리 장인들
- 호남 최초 전통주 복합문화공간 '요담엔'

맛과 함께

장성 여행

황룡강변 하늘술길 애기단풍

기획-지금은 아트페어 시대

키아프·프리즈 서울을 가다

동시대 세계 한국 미술을 만나는 장

'아트:광주:24'가 남긴 것

관람객 2만 5000여 명 발길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②
윙접기 든 재미 조각가, 존 배

예향 초대석

이정모

"자연사에 인류 지속가능의 답이 있어"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고요함으로 향한 길

전남의 사찰

한국학중앙연구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⑧·에필로그

호남의 누정⑧-광주 아문당

조선 선비 은일의 미학 품은 정자

석지 채용신

전통양식을 계승한 마지막 초상화가

화제의 현장
월간 <예향> 창간 40주년
마흔해 퀘직 담은 아카이브전